

“자유문화의 이데올로기와 태업의 문법” 발제(주요 내용 번역)

동원, 2010.11.1

목차

1. 들어 가기.....	1
2. 기계의 살아있는 에너지: 미셸 세르와 정보제어적(사이버네틱) 기식.....	2
3. 디지털주의: 미디어문화의 난관.....	5
4. 자유문화의 이데올로기.....	7
5. 창조적 반-공유지에 반대하기.....	9
6. 자율적 공유지를 향하여.....	10
7. 지대는 공유지의 이면이다.....	12
8. 인지적 자본주의의 4가지 차원.....	14
9. 비물질적 기식의 분류.....	16
10. 쌍두 다중과 태업의 문법	18

1. 들어 가기

(발제) 요지

- 이 글은 네트워크문화에서의 (새로운) 착취/수탈 방식을 자율주의 맑스주의의 최근 지대 이론에서 찾고 있다. 즉, 토지(공유지)에 대한 지대처럼, 네트워크 공유지에 대해 지대를 설정하면서 착취/수탈하는 것이고, 인지 자본주의에서는 지대 자체가 이윤이 되고 있고 현 경제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계속 착취/수탈되고 있는 공유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 이 글이 다소 어려운 관계로 요약하기보다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는 식으로 발제를 하였다. 별도의 문제제기는 없다.

읽을거리

- Matteo Pasquinelli. The Ideology of Free Culture and the Grammar of Sabotage. 2008

줄임글

- 비물질과 물질 영역 사이, 디지털 경제와 생물경제(bioeconomy) 사이의 단순한 대칭에 의해 지배되는 현대의 미디어 논쟁에 잉여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첫째, 세르(Serres)의 기식(the parasite) 개념의 특성과 바타이유(Bataille)의 과잉(excess)과 생화학 에너지(biochemical energy) 개념을 통해 새로운 비대칭을 모양잡아 볼(shape) 것이다. 둘째, 저작권 체계의 위기와 소위 자유문화 운동의 모순을 출발점으로 삼아 창조적공유지(creative commons)에 대항한 자율적공유지(autonomous commons)의 관념을 디자인할 것이다. 셋째, 룰라니(Rullani)의 인지 자본주의와 네그리(Negri) 및 베르첼로네(Vercellone)가 발전시킨 새로운 지대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적 전장(arena)을 개괄한다. 마지막으로, 태업(sabotage)이 지대의 기식적 차원에 대항하여 공유지를 방어하는 다중의 거울상의 몸짓으로 제시될 것이다.

2. 기계의 살아있는 에너지: 미셸 세르와 정보제어적(사이버네틱) 기식

The living energy of machines: Michel Serres and the cybernetic parasite

미디어 이해를 위한 ... 에너지, 잉여, 기술

- 기술 아래에 에너지가 있다 - 살아있는 에너지.
- [저주받은 공유](The Accursed Share, 1988)에서 바타이유는 국가와 경제의 새로운 형태로 그 자체를 항상적으로 환생시키는 에너지 잉여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사회를 묘사했다.
- 미디어는 정말로 야생 서식지이다: 그 지하 핵심에는 매일 포르노의 흐름이, 표면에는 지정학적인 전쟁을 위한 전투장이 제공된다.
- 미디어는 경제와 사회적 갈등을 모양지우는 같은 에너지 과잉으로 채워지고 있다(be fed). 하지만 미디어의 에너지 잉여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어왔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디어 비평 학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에너지 이해 [방식]이 채택되어 왔는가? 생산, 소비, 잉여의 희생에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잉여가 관여되는가? : 에너지, 리비도, 가치, 돈, 정보?
- 오늘날의 미디어 담론을 보면, 바타이유 [관점]은 일종의 디지털 포틀래치(potlatch)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만 채택되고 있다(enrol). 디지털 복제의 분노스러운 그러나 메마른[무익한] 재생산인 디지털 포틀래치.
- 반면, 그의 "일반 경제학" 하에서 에너지는, 다중의 기기(a multitude of devices)를 가로지르고 채워주면서(feed), 기계의 주위와 내부를 흐르는 듯 하다.
- 동족결혼식 운명의 미디어 문화를 극복하는 것은 잉여에 대한 급진적인 이해를 통해 다시 디자인되어야 한

다. 바타이유 자신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보다 나은 재생산 조건을 제공하는 생명의 연장으로서 기술을 간주하고 있다. "자연에서의 나무 가지들과 새 날개들" 처럼 기술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다.

생물계 & 정보계

- 그러나,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한다, 정보 네트워크가 생물계에 진입할 때. 디지털 기계들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환생시키는가? 바타이유가 염두에 두었던 전통적인 기술과 같은 생화학적 에너지의 더 나아간 확장인가?
- 디지털 기계는 기계의 문(門, 분류의 한 항목)의 명백한 분기이다: 기호적인 영역과 생물학적 영역은 두 가지 다른 계층을 대표한다.
- 기 호적 흐름의 에너지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흐름의 에너지가 아니다. (내가 뒤에서 디지털주의라고 소개할) 널리 퍼진 디지털 이데올로기에 의해 선전되는[**propagated**] 것처럼, 그것들은 상호작용하지만 대칭적이고 정반사하는(**specular**) 방식이 아니다. 에너지는 항상 일방향으로 흐른다.
- 네트워크사회의 시나리오와 그 흐름의 공간에 대한 찬사를 익히 안다면, 바타이유와의 과잉의 생태계 여행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적 속성을 상기하는데 유용하다. 바타이유에서 경제적 잉여는 리비도적인 과잉, **즐거움, 희생과 엄격히 관련된다**. 어떻게 잉여가 축적되는가와 교환이 상실되는가를 설명하는 특정한 모델...

한 획을 긋는 책, [기식자]에서 미셸 세르는

- 기식자의 개념적 특성에서 보편적 생명의 비대칭성을 잡아주고 있다: **결코 에너지의 동등한 교환은 없다**. 언제나 한 기식자가 에너지를 훔치고 다른 유기체(organism)에 먹인다. 컴퓨터 시대의 초기에 (이 책은 **1980년대 출판**), 기식자는 에너지의 이분 모델에 기반을 둔 모든 형태의 사유에 대한 물질주의적 비판의 막을 열었다:
- 세르의 반도체는 컴퓨팅 대신에 에너지를 훔쳤다.
-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위한 이(기생충)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위한 숙주이다. 흐름은 한 방향이지 결코 다른 방향이 아니다. 이를 반도체식(semiconduction)이라고 부른다. 이 가치, 이 한 쪽 방향화 살표, 이 반대방향을 갖지 않는 관계, "기식적인"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이해 모델 - 기식(자)

- 바타이유가 생산 이후의 에너지의 소비에 관심을 환기시킨다면, 세르는 축적 이후에 어떻게 "남용"이 작동하는가를 보인다: "남용은 이용 이전에 나타난다." 세르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모두에 앞서는 **남용-가치**를 소개한다: "매우 간단하게, 단지 하나의 방향만 가진 화살표이다." 기식자는 작은 유기체에서부터 인류까지의 자연 연속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응축하는 비대칭적인 화살표이다: "기식자는 기식자들에 기식한다." 기식자는 이원적이지 않고 삼원적이다. 기식의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하는 기계의 디스토피아적인 판본처럼 보인다. 끊임없는 흐름이 아니라 **잉여의 착취**에 보다 초점이 있으면서.
- 세르는 바타이유의 생기론과 같은 것을 공유하지만, 추가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이, 생물적인 것과 기호적인 것, 경제와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심한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기식자의 유기적 모델은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핵심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실제로 세르는 예언적으로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상기되듯이) 기식적인 음식 사슬의 가장 최근의 표명으로서 정보제어학(사이버네틱스)를 소개하고 있다.

지적 노동과 네트워크에서의 기식 ... 비물질적인 기식

- 더 나아가 세르는 같은 기식 모델을 지적 노동과 네트워크 그 자체에 사용하고 있다 (기술이 로고스의 사치는 속성의 연장이듯이): "이 사이버네틱스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슬을 만들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것, **정보의 절도에 구축되어 있다.**" 지적 생산과 물질 생산 사이의 세르의 기회주의적 관계는 전통주의자들처럼 들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라짜라토와 네그리가 1991년에 "지적 노동의 헤게모니"에 대해 쓰기 시작할 때조차, 대량 지성성(mass intellectuality)에 대한 자본의 착취적 측면은 맹백했다.
- 오늘날 비물질적인 기식은 분자적이고 풍토병이 되었다 - 모든 사람들이 지적이고 사이버네틱한 기식을 운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지적 노동이 기식자의 형태로 정치적 전장에 진입할 때 다중의 관념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 네트워크가 대량의 사이버네틱 기식으로 그려질 때 네트워크 하위문화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 기호적인, 기술적인, 생물적인 층위 간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 간의 뚜렷한 비대칭성이 다시 도입되어야 할 시간이다.

비물질적인 기식과 물질적 흐름

- 비물질적인 기식의 개념적 특성으로, 나는 정확하게 기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통해 생물학적인 생산의 착취를 명명한다: 물질 에너지와 경제적 잉여는 디지털 기계에 의해 흡수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단지 배치되

는 것이다. 비물질적인 흐름은 물질적인 흐름으로부터 그리고 지속적인 교환 (에너지 - 상품 - 기술 지식 - 화폐) 을 통해 잉여를 뽑아낸다. 비물질적인 기식은 처음에 구경거리의 장치로서 기능한다: 극화된 세계를 모사하면서, 협력의 환경을 구축하거나 단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면서, 이것은 그 물리적 기저를 통해 그리고 그것에 호의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한다.

- 비 물질적 기식은, 지대가 신진대사의 지배적 형태가 되는 듯한 곳인 다양한 가족에 속한다. 다른 종류의 서식자에서 살아남는다. 그것의 축수들은 다음의 것들에 신경을 분포시킨다: 메트로폴리스(창조산업 과대선전[hype]을 통한 부동산 투기), 미디어(물질적 하부구조에 대한 지대와 온라인 공간에 대한 독점), 소프트웨어(사유 하드웨어를 팔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착취), 지식(지적 재산에 대한 수익), 금융 시장(집단 히스테리에 대한 주식거래투기) 그리고 수많은 다른 예들.

3. 디지털주의: 미디어문화의 난관

Digitalism: the impasse of media culture

디지털주의 - 지배적 기술 패러다임

- 디지털주의: 일종의 근대적, 평등주의적, 값싼 영적 인식인데, 거기에는 지적 물신주의가 디지털 네트워크의 숭배로 대체된다. 특정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 존재론적으로 지배적 기술 패러다임: 기호적이고 생물적인 영역은 완벽하게 평행하고 서로를 거울상으로 한다(보편적 디지털화의 구글 유토피아 같은)고 믿는다.
-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서로 번역되고...
- 경제적으로 디지털주의: 거의 에너지 불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 복제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물질 생산을 모방(경쟁 emulate)한다고 믿는다.
- 정치적으로 디지털주의: 쌍방의 선물 경제를 믿는다. 인터넷은 실제로 어떠한 착취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평등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디지털주의는 온라인 세계를 유지하는 오프라인 노동에 대한 아무런 인지 없는(디지털 격차에 앞서는 계급 격차), 탈구체화된 정치로서 작동한다.
- 생태적으로 디지털주의: 환경 친화적이고 낮은 포드주의의 오염에 반하여 배출 기계 제로로서 스스로를 판촉한다. 그러나 평균 브라질 사람들보다 세컨드라이프의 아바타가 전기 소모가 더 많은 듯 하다.

- <자본>의 서두에 배치한 맑스의 상품 물신성처럼, 코드의 물신성은 네트워크 경제의 기초로 놓여져야 한다. 디지털 선언의 케빈 켈리(Kevin Kelly)의 제목 - "신은 기계다."
- 디지털주의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 고무된 정치적 모델의 하나이다.
- 인터넷은 특히 미국의 **60년대** 대항문화의 정치적 꿈에 의해 연료 공급을 받은 것이다. 자율주의 맑스주의 전통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동시에 제국의 구조이자 다중의 자기조직화를 위한 도구이다.
- 하지만 단지 앵글로-아메리카 문화는 정치 보다 기술의 상위성의 신념을 인지하고 있다.
- 오늘날 활동가들이 자유소프트웨어모델을 전통적인 가공물에 적용하고 "**GPL 사회**"와 "**P2P 생산**"을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사회적인 것이고 기술적인 것의 순수한 대칭을 믿기 때문이다.

자유문화 <-- 해커문화, 자유소프트웨어운동

- 이러한 인식 하에서, 자유문화의 정의는 디지털 파일의 자유로운 복제와 관련한 유사-정치적 의제들을 형성하는 그러한 모든 하위문화를 모은 것이다. 그 출발은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Information wants to be free**)는 표어인데, 이걸 **1984년** 최초의 해커 회의에서 스투어트 브랜드가 내놓은 것이다.
- 이 후에 해커 지하세계는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부양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열쇠말들의 연쇄가 발생하였다: 오픈소스, 오픈콘텐츠, 선물경제, 디지털 공유지, 자유 협업, 지식 공유, 그밖의 스스로해결하기의 변형들인 오픈소스 건축, 오픈소스 예술 등.
- "자유문화"는 또한 창조적 공유지의 창시자인 로렌스 레식의 책 제목.
- 디지털 영역 안에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사회적 향상과 혹독한 전투에 대한 언급 없이, 여기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바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오프라인 적용이다.

기술 ... 물신주의

- "말씀이 육신이 되다"(the word is made flesh)라는 옛 격언[성경인 듯]이 여전히...
- 종교적 무의식이 기술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
- 플로리안 크레이머(Florian Cramer)의 책 "살로 만들어진 말씀"(Words made flesh): 유대교, 기독교, 피타고라스, 신비주의에 속하는 서구 세계의 고대 두뇌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코드 문화의 계통학 제공
- 그러나 세르가 제안하는 듯이, 원시적인 그런 말은 뒤바뀌어야 한다: 육신이 코드가 되다. 그 정신 자체는 육신의 기식적 전략이다. 육신이 먼저이고, 로고스보다 앞서 있다. 어떠한 디지털 꿈에서 디지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구적 경제와 합쳐지면서 "자유로운" 정보의 각 비트는 마치 잊혀진 쌍둥이처럼(??) 그 자신의 미시 노예를 운반한다(??).

4. 자유문화의 이데올로기

The ideology of Free Culture

자유문화(주의)

- 자유문화주의(freeculturalism)에 대한 문헌: 광대하다. 그러나 **잉여**의 렌즈에 초점맞추는 걸 통해 부분적으로 풀어질 수 있다. 스톨만과 레식과 같은 저자들을 읽으면 질문이 생긴다: **소위 자유사회(Free Society)에서 이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end up)** 자유문화는 생산보다는 비물질적인 재산의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 하다. 자세히 봐도, 잉여의 유형은 다시 등장한다.
- 레식의 자유문화 책: 창조적공유지 기획과 앵글로 아메리카 자유주의 전통을 연결 - 언론의 자유(**free speech**)가 항상 자유시장과 **[압]**운이 맞았던 곳. 레식은 카피레프트와 해커문화에서 영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스톨만은 소프트웨어만을 일단 가리켰다면, 레식은 그 패러다임을 문화 가공물의 전체 스펙트럼에 적용한다. 소프트웨어가 보편적인 정치 모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저작권이 아니라면,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의 해결책?

- 그 책은 저작권 체제의 유용한 비판이고 동시에 적어도 그가 악마적 단어: 세금을 말하기 전까지는 충칭적인 디지털 자유의 해명이기도 하다. 음악 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레식은 창작자들에게 그들의 작업을 위한 보상으로서 "**대안적인 보상 시스템**"(ACS)을 제공해야 했다. 하버드법대 윌리엄 피셔로부터 온 제안을 수정하였는데... 그의 계획에서 디지털 전송 가능한 모든 콘텐츠는
-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고... 일단 표시되면, 기업들은 발전시킬 수 있는데
- 각 콘텐츠의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이 배급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그 숫자에 기초하여, 그 다음에
- 예술가들이 보상된다. 그 보상은
- 적절한 세금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 "자유문화의 전통"에서 해결책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세금이다. 다운로드 추적하고 세금 매기는 것 - 스

칸디나비아 쪽 사회 민주주의에서나 상상 가능한 공공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개입

- 또 다른 문장: 지적재산의 희생은 보다 큰 인터넷을 얻는다는 것이다. 레식의 직관은 옳다(자본주의를 위한). 레식은 시장이 새로운 독점과 지대를 설정하고 확장하기 위한 역동적이고 자기발생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역동적인 공간은 게으른 저작권 체제보다 더 중요하다.
- 어떤 게 나은가?
- 95% 보안이 되면서 X 크기의 시장을 생산하는 기술?
- 50% 보안이 되면서 X의 5배 크기의 시장을 생산하는 기술?
- 덜 보안이 되는 것이 더 많은 허가받지 않은 공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허가받은 공유를 위한 훨씬 큰 시장을 생산하는 듯 하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깨부수지 않고 예술가들의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온라인의 비물질적인 정보 공유지에 국한

- 이러한 인식에서, 창조적공유지이용허락(CCL)은 시장 공간을 확대하고 윤회하는 것이다.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 "아이디어를 놓고 보면, 명성은 돈이다. 무료로 나의 작업물을 배포하기를 원하는 수 용자들만큼 빠르게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 [그러나] 디지털주의의 마찰없는 공간은 더욱 강한 경쟁 시나리오로 향해 가속화되는 듯 하다. 이런 인식 하에서, 벤클러(Benkler)는 "정보가 비경합적이다"라고 그가 쓸 때 틀렸다. **정보의 비경합성: 자유문화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가설/원리이다** - 레식과 벤클러는 자유 디지털 복제가 더 많은 경쟁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더 많은 협업을 야기한다는 걸 당연시한다.
- 물론, 경합은 디지털 복제에 의해 생산되지 않지만, 그것들의 현실 공간에서의 마찰과 다른 제한된 자원들에 의해 생산된다. 벤클러는 "또래 생산"을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비물질적인 복제/재생산을 다루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와 위키백과가 "사회적 생산"의 주요 사례로 광범위하게 과잉-인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예들은 실제로는 온라인의 사회적 생산만을 가리킨다.

5. 창조적 반-공유지에 반대하기

Against the Creative Anti-Commons

CCL 개시 이후 유럽 미디어 문화로부터 특히 점증하는 비판이 있다. **2004~6년** 글들을 보면, 두 가지 비판의 전선

- 창조적공유지의 제약(상업금지, 동일조건 등)에 대항하는 현실의 공동성(commonality)의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

- 플 로리안 크레이머 - 정확하고 격렬한 분석: "CC라이선스 하에서 어떤 것이 가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CCL은 파편화되어 있고,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자유의 공통된 최소 표준을 정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전체적으로 자유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운동과 다르게, 그것들은 저작권(복제의 권리)을 관객들에게 부여하기보다는 그 저작권의 소유자들에게 보존하는 철학을 따르고 있다." Florian Cramer, "The Creative Common Misunderstanding", 2006. <http://www.nettime.org/Lists-Archives/nettime-l-0610/msg00025.html>

- 베를린에 근거를 둔 신-무명씨(Neoist Anna Nimus)는 크레이머에 동의: CCL이 소비자의 권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점 - "창조적공유지는 생산자-통제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합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별을 철폐하기보다는 강화한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공유 자산(common stock) 밖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산자가 부정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대한다" [Anna Nimus (alias Dmytri Kleiner & Joanne Richardson), "Copyright, Copyleft & the Creative Anti-Commons", Dec. 2006.

http://subsol.c3.hu/subsol_2/contributors0/nimustext.html] 익명자들은 공유 자산(common stock) 밖에서 소비자들이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자유를 요청하지만, (상업적 사용을 의미하는) 교환가치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에게 공유지는 단지 그 생산자 혹은 수동적인 소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적인 소비자에 의해서 규정된다. CCL은 실질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공유지를 더 여는 것이라기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공유지를 닫는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별명으로, "창조적 반-공유지"

- 창조적공유지의 지구적 자본주의와의 공모를 지적하는 사람들

- 무명씨와 크레이머의 비판은 (저작권, 카피레프트 혹은 CC 등 어떠한 형태에서든) 지적재산권의 보다 큰 경제와 잉여가치 추출에 대한 설명이 빈약한 채 자유주의 전통에 보다 가깝다. 반면, 후기 - 자율주의 맑스주의 내부의 더 강한 비판은 **CC**와 디지털에 국한된 공동주의(commonism)의 다른 형태들에 의해

내재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 예: 활동가인 마틴 하디(Martin Hardie)는 "FLOSS의 논리는 우리가 결코 착취되거나 다른 이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았던 곳으로서의 기업 자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 자유'에 유일한 초점은 벽없는 지구적 공장에서의 적극적인 가치화의 과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끌어내 버린다." [Martin Hardie, "Change of the Century: Free Software and the Positive Possibility", Mute, 9 Jan. 2006. <http://www.metamute.org/en/Change-of-the-Century-Free-Software-and-the-Positive-Possibility>] 하디가 FLOSS 비판하는 것은 정확하게 FLOSS가 결코 자본에 의해 포착되는 방식을 질문하지 않고 생산력과의 관계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적공유지

- 결론적으로, 자율적공유지라는 관념이 초-찬양되는 창조적공유지에 대항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경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상될 수 있다.
- 공유 자산(common stock)의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이용을 허용하는 것: 단일 노동자들에 의한 상업적 사용 함의
- 지구적 경제 안에서의 공유지의 공모와 역할을 의문시하고, 큰 회사들의 착취 밖으로 공유 자산을 위치시키는 것
- 비물질적인 공유지와 물질적인 공유지 사이의 비대칭 그리고 물질적 생산에 대한 비물질적 축적의 영향(리눅스를 사용하는 IBM 등)을 인식하는 것
- 역동적으로 건설되고 방어되어야 하는 혼성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공유지를 받아들이는 것

6. 자율적 공유지를 향하여

Towards an Autonomous Commons

'철의 저작권 수입 법칙'

- 모든 "실질적인" 공유지 요청 중에서,
- 자유문화의 평평한 패러다임을 깨는 실용적 제안에서 갈등의 노드적인 지점을 강화한 것 - 드미트리 클라이너의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 그의 글에서, 클라이너: 다른 어떤 디지털 격차보다 더욱 격렬한 재산의 격차를 알아차린다: 세계 인구의 10%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다중에 비해 지구 자산의 85%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는 계급의 이러한 물질적 지배는 결과적으로 확대되는데,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저작권 덕분에, 그래서 이것들은 소유될 수 있고 통제, 교역될 수 있다.
- 음악의 예: 지적 재산은 음악가들보다 소유계급에게 더욱 결정적이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디지털 공유지는 더 나은 서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카피레프트가 그들에게 먹고 살도록 돈벌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결국, 지적 자본주의 하에서 저자들의 임금 조건은 포드주의의 낡은 법칙과 같은 것을 따르고 있는 듯 하다. 리카르도의 지대 정의와 소위 "철의 임금 법칙"에서부터 '철의 저작권 수입 법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 출판, 배급, 홍보, 미디어 생산의 수단에 대한 사적인 통제 시스템은 예술가들과 모든 다른 창조적 노동자들이 그들의 생계유지 이상 벌어들일 수 없게 확증한다. 무슨 일을 하든.. 그러한 권리들이 어떤 실질적인 금융적 가치를 가지기 전에 재산 소유자들에게 저작권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는 당신의 작업의 재생산 비용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철의 저작권 수입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클라이너는 저작권과 카피레프트 체제 모두 노동자들 수입을 평균 욕구 이하로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카피레프트는 그것이 이윤을 단지 물질적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합되게 재배치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예술가들 별 도움이 안 된다.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 클라이너의 향상된 해결: "더 나아가 카피레프트" - 계급 격차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혼성된 상태를 갖는 라이선스
- "더 나아가 카피레프트" 생산물은 무료/자유이고, 단지 임금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사람들(다른 노동자 혹은 조합)에 의해 돈벌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혁명적인 잠재력을 가지려면 카피레프트는 "더 나아가 카피레프트"가 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의 노동자 소유권**
- 이를 위해서, 라이선스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단일한 약관 묶음을 가질 수는 없고, 다른 계급에 대한 다른 규칙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 소유권과 공유지 기반 생산의 맥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규칙 묶음이 있고, 생산에서 사유재산과 임금노동을 채택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 하에서 노동자 소유의 인쇄 조합은 공유 자산을 그들이 하고 싶은대로 복제, 배포, 수정이 자유롭다, 하

지만 사적 소유의 출판 회사는 자유 접근이 금지된다."

막대 구부리기

-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는 일부 CCL이 지원하는 '비상업적' 사용과는 매우 다른데, 그것은 내생적인(공유지 내부) 상업적 이용과 외생적인(공유지 외부) 상업적 이용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비대칭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내생적인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외생적인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면서.** 흥미롭게도 이것이 원래의 공유지 제도의 정확한 적용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생산에 엄격히 관계된 것이었다: 공유지는 특정한 공동체가 수확하거나 동물을 기르는데 사용한 땅이었다. 누군가가 소를 방목할 수 없고 우유를 생산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진짜 공유로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 클라이너: 돈이 그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동은 공유지에 속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적 재산이다.

7. 지대는 공유지의 이면이다.

Rent is the other side of the Commons

어디서 잉여 추출?

- 인 지 자본주의는 어떻게 돈 버나? 디지털 경제는 어디서 잉여를 추출하나? 디제라티와 활동가들이 또래 생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동안, 좋은 관리자는 - 그러나 또한 좋은 맑스주의자는 - 집단 지성의 어깨 위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후기-노동자주의 학파는 항상 노동자나 디지털 다중에 의해 생산되는 일반지성의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가져왔다: 잠재적으로 해방적이나 항상적으루다가 진정한 사회적 자율성으로 변환되기 전에 흡수된다. 자유문화주의자들이 찬양하는 협업은 마지막 디지털 세대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지 않는 지식의 사회화의 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하다:
- 결국 온라인 "자유 노동"(free labor)은 "네트워크의 부"보다는 더욱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 최근 후기-노동자주의 학파가 진전시킨 지대이론은 보다 명확하게 디지털 경제를 들춰내고 있다.

새로운 지대 논의

- 자율주의 맑스주의 명성: 후기 자본주의를 위한 정치 개념의 새로운 도구상자를 만들었기 때문 (다중, 비물질 노동, 생명정치 생산, 인지 자본주의 등). 2007 in Posse Negri and Vercellone 글에서: 지대를 현재 경제의 결정적 메카니즘으로 따라서 새로운 적대의 장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 자율주의 맑스주의는 잉여 추출의 새로운 기식적 양식보다는 노동 조건의 전환에 보다 초점;
- 고전 이론: 지대는 이윤과 구별; 소유자가 단지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식적 수입이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토지 재산을 가리켰다. / 이윤은 생산적인 것 그리고 (상품가치와 노동력으로부터) 잉여를 발생시키고 추출할 수 있는 자본의 힘/권력을 가리켰다.
- 베르첼로네는 "양질의 생산적인 자본주의"라는 관념을 비판, **이윤에 대한 지대가 최근 경제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 혁신과 창조 경제의 과대포장 밑으로, 자본주의 전체는 지하의 기식적 자연을 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의 모토: **인지적 자본주의에서 "지대는 새로운 이윤이다"**. 지대는 기식적인데 왜냐면 고전적인 이윤의 선분에 직교하기 때문이다. 기식은 어원상 "다른 식탁에서 먹는 것", 직접적으로가 아닌 내밀한 방식으로 잉여를 빨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컴퓨터 앞에서 생산한다면, 확실히 누군가가 우리의 지갑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이다. 지대는 공유지의 다른 쪽 면이다. 예전에 이것이 공유 토지에 설정되었다면, 오늘날은 네트워크 공유지에 설정된다.

인지하층계급(cognitariat)의 양분화

- **이윤에 대한 지대가 되기(Becoming rent of profit)**는 관리와 인지적 노동력의 변환을 또한 의미한다. 자본의 자동화는 협업의 자동화와 나란히 성장한다. 오늘날 관리자는 금융과 투기적인 작업들을 점점 더 자주 다루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산된 경영을 맡고 있다. 이러한 진화에서 **인지하층계급(cognitariat)**은 두 경향으로 나뉜다:
 - 한쪽에서 숙련 인지 노동자는 "자본 지대의 직원들"이 되고 있고 스택옵션을 통해 지대 시스템 안에서 선취된다.
 - 다른 쪽에서 노동자 다수는 숙련/기예가 지식에서 더 풍부해짐에도 불구하고 삶의 조건에서 탈계급화에 직면한다.
- 신경계가 보다 많은 맥잡(McJobs)을 발생시키는 것은 신비가 아니다. 이 모델은 쉽게 인터넷 경제와 그 노동력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용자들이 콘텐츠 생산과 웹 관리를 담당하지만 어떠한 이윤도 나눠받지 못한다. 예컨대 구글 같은 대기업들은 애드센스와 애드워드 같은 서비스로 이용자가 발생시킨 콘텐츠

트의 관심경제를 통해 돈을 번다. 구글은 단지 작고 단순 차원의 기식으로서 웹사이트에 침투하는 웹 광고의 가벼운 하부구조를 제공하고 어떤 콘텐츠 생산도 없이 이윤을 뽑아낸다. 가치의 일부는 이용자와 물론 나누고 구글 코더들은 보다 세련된 알고리즘 개발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월급 받는다.

8. 인지적 자본주의의 4가지 차원

The four dimensions of cognitive capitalism

디지털혁명, 지재권, 엔트로피 경향

- 디지털 혁명: 비물질 대상의 복제를 아주 쉽고, 바르게 편재하고 거의 공짜로(**free**) 할 수 있게 한다.
- 그러나 이탈리아 경제학자 엔조 룰라니(**Enzo Rullani**) 지적대로: 인지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proprietary**) 논리는 사라지지 않고 확산(**diffusion**)의 법칙 하에 그 자체를 종속시켜야 한다." **지적 재산(그리고 그래서 지대)**는 더 이상 공간과 대상이 아니라 시간과 속도에 기반을 둔다. 저작권 말고도 지대를 추출하는 다른 수많은 양식들이 있다. 그의 책에서 엔조 룰라니는 복제가 쉬운 인지 생산물은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확산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엔트로피 경향**이 모든 인지 생산물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정된 사유 지대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가지 지대

- 더 특수하게는 **이용의 증가에 따라 생산되는 지대**가 있고 **비밀의 독점에 따라 생산되는 지대**가 있다. 두 가지 대립하는 전략:
 - 전자는 음악 같은 문화 생산물에 추천할 만 하고
 - 후자는 특허에 적합한다.
- 지식의 가치가 연약하고 감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지 자본주의 하에서 **free[자유/공짜]**의 증대(**multiplication**)는 중대한 전략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구경거리적이고, 상징적이고,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공간에 거주시키는) 비물질 상품들은 강력한 엔트로피적 의미의 부패를 겪는 듯 하다. 끊임없이 독특하고 배타적인 경험을 판매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정서 시장에서 특히, 확산 곡선의 끝에서 진부한 운명은 어떤 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식의 가치, 지적 재산

- 룰라니에게 지식의 가치(더 확장해서 모든 인지 생산물, 예술작품, 브랜드, 정보의 가치)는 세 가지 추동자(drivers)의 구성으로 주어진다.
 - 그 수행과 적용의 가치(v)
 - 증가와 모사의 숫자(n)
 - 그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치의 공유비율(p)
- 그것이 자기-추진적이 되고 모든 세 가지 추동자를 밀어낸다면 지식은 성공적이다:
- 가치의 최대화하기
- 효과적으로 증식하기
- 생산된 가치를 공유하기
- 물론, 역동적인 시나리오에서 세 가지 힘 간의 타협은 필요한데, 그것들은 서로 간의 대체적이고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추동자가 향상되면 다른 것들은 악화된다.
- 룰라니의 모델은 매력적인데, 정확하게 왜냐면 지적 재산이 잉여의 추출에 아무런 중심적인 역할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대가 전략적으로 적용되고 역동적으로 세 가지 추동자와 함께, 지적 재산 체제와 다르게 되고 있다.

물질적 벡터

- 지식은 따라서 덜 극적인 사이버공간으로 투사된다, 그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풍경으로 거기서 인지 경쟁은 새로운 시간-공간 좌표를 가지고 묘사되어야 한다. 룰라니는 그의 모델은 3차원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특히 시간과 함께 운영되면서 4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룰라니의 역동 모델이 벤클러의 "사회적 생산"의 평평한 관념 같은 것보다 더 흥미롭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급진 비판이나 행동주의가 채택하지 않았다.
- 그의 관점에서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또한 현대의 기호의 과도와 디지털 열광주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자율적이고 후덕한 공간으로서 인지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반면, 룰라니는 지식은 오로지 물질적 벡터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결절점(nodal point)은 지식의 free[자유/무료] 복제성과 물질적인 것의 비복제성 사이의 마찰이다. 비물질적인 것은 단지 그것이 물질적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할 때에만

가치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음악 CD는 물리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소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음악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신체 그리고 특히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CD 벡터가 p2p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에 힘입어 탈물질화할 때, 예술가의 신체는 보다 강한 경쟁에 관여해야만 한다.

- 디지털 미디어가 경쟁에 더 자극을 주는가 아니면 협업에 더 그러는가? 오늘날 인터넷 비판을 위한 적절한 질문이다.

9. 비물질적 기식의 분류

A taxonomy of the immaterial parasites

인지 지대

- 지대와 그 기식자들의 분류: 인지 자본주의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데 필요하다. 분류는 단지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행동하려는 인지 시스템으로서의 은유가 아니다.
- 베르첼로네에 따르면: 인지 자본주의가 도입하는 지대의 특정한 형태는 특히, 저작권,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에서 뽑아내지는 인지 지대이다. 보다 정확하게 물라니는 지대의 새로운 형태들을 속도 기반의 경쟁 시나리오에 맥락화시킨다. 그는 지적 재산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이동하고 일시적인 미시-독점에서 지대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추출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 [즉, 물라니의 인지 자본주의 논의는, 지적 재산권 체제도 넘어서는 잉여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즉, 지적재산권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들, 웹2.0의 자유노동 착취 방식에 대한 분석틀이다.]
- 인지 지대의 가능성은 기술 기반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되어왔다. 디지털 기술은 단지 실제로 "free[공짜/무료]"인 커뮤니케이션, 사회화, 협업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왔다. 잉여 추출은 비물질적인 "세컨드 라이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하부구조에 인자하게 채널링 되었다.

기술 지대

- 기술 지대 33[사유 기술과 하부구조 기술의 구분 내용 인용]는 ICT 하부구조들이 미디어, 대역폭, 프로토콜, 표준, 소프트웨어 혹은 가상 공간(최근의 사회적 네트워크: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 포함)에 대한 독

점을 설정할 때 그 ICT 하부구조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대이다. 이는 여러 다른 층위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와 전기의 물질성부터 서버, 블로그, 커뮤니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의 비물질성까지.

- 기술 지대는 p2p 네트워크와 자유문화의 행동주의에 의한 일반적인 소비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먹여진다(fed). 기술 지대는 지식만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공간에 대한 착취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지대와 다르다.

관심지대

- 비슷하게 또한 관심 경제는 소비자 시간공간의 제한된 자원에 적용되는 관심 지대로서 묘사될 수 있다. 구경거리와 침투 미디어의 사회에서 관심 경제는 큰 범위까지 상품 가치화를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 시간은 끊임없이 분쟁이 되는 땅의 희소한 부분과 같다.
- 결국, 기술 지대는 기술-기식자를 유지하는 신진대사의 큰 부분이다.

금융(화)

- 어떻게 신경제 과대선전이 주식 시장에 대한 투기의 추진력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닷컴 거품은 인터넷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가로질러 채널링된 나선형의 가상 가치화를 착취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전체 금융 세계는 지대에 기반을 둔다. 금융화는 정확하게도 가정 저축을 기식하는 지대의 이름이다. 오늘날 임금조차도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노예화된다: 노동자들은 스톡옵션으로 월급을 받고 따라서 치명적으로 소유하는 자본의 운명에 따라 선취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 결국, 토지 지대의 원시적 개념조차 인지 자본주의에 의해 갱신된다. 예술적 지하세계와 재개발 쇼 사이의 관계처럼, 부동산 투기는 물리적 장소의 "집단적 상징 자본"(데이비드 하비의 "지대의 기술"에서 정의된)에 엄격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날 역사적인 상징 자본(베를린 혹은 바르셀로나에서와 같이)과 인위적인 상징 자본(리차드 플로리다의 마케팅 캠페인에서와 같이) 모두 대량 규모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착취된다.

모두 기식

- 이 모든 지대의 유형들은 비물질적인 기식자들이다. 지대가 공간, 시간, 커뮤니케이션, 상상, 욕망의 가상

적 확장과 함께 역동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기식자는 비물질적이다. 정말로 기식자는 물질적인데, 인지 지대와 관심 지대의 경우 상품들, 기술 지대의 경우 미디어 하부구조, 상징 자본에 대한 투기의 경우 부동산 등과 같은 물리적 벡터를 통해 가치가 전송되기 때문이다. (단지 금융투기가 전적으로 탈물질화된 가치 기계이다.)

- 기술의 기식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기술-기식의 새로운 디스토피아적인 숭배에 호의적인 낡은 디지털주의적 미디어 문화의 쇠퇴를 취임시킨다.

10. 쌍두 다중과 태업의 문법

The bicephalous multitude and the grammar of sabotage

네트워크 (문화) 패러다임

- 수많은 하위문화와 정치학과들이 지식과 네트워크 패러다임 주위에서 등장하였다(자유문화부터 '창조 계급' 그리고 이러한 입장의 수많은 급진 저술들조차) -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시나리오로서 인지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뵘으로 비르노는 "그 내부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협업적이면서 공격적인 다중의 "수륙양서적" 속성에 밀줄 치는 몇 안 되는 저자이다.
- 자율적인 네트워크의 교양(Bildung)은 즉각적이거나 쉬운 게 아니다. 기어츠 로빈크와 네드 로시터가 말하듯이, "네트워크는 다양성과 갈등(네트워킹)에서이지 통일성에서 활발한 게 아니다. 이것이 공동체 이론가들이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협업과 집단지성은 그 자체의 회색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생활은 특히 수동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노동 거부

- 디지털주의 자체는 순수한 공간을 향한 집단적인 욕망의 승화로서 그리고 동시에 기식적 거대-기계의 회색 공범자로서 묘사될 수 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이론은 디지털 문화의 잃어버린 정치적 연결 주위에 설정되어야만 하다: 그것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의 비관여와 그것의 비협업적 속성.
- 네트워크와 협업은 항상 서로에게 맞춰지는 거 아니다.
- Geert Lovink and Christopher Spehr: 언제 네트워크는 작동 안 하기 시작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협업하지 않기 시작하는가? 거부의 자유와 일 안하기(not-working)는 Lovink and Spehr가 어떠한 협력의

바로 그 토대(자율주의자들의 노동의 거부의 메아리)에서 배치하는 것이다. **"자유 비협업"("Free uncooperation")**은 협업의 부정적 존재론이고 합의적인 기식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잃어버린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권리와 태업의 자유는 **"불법" 과일공유의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인 몸짓을** 또 한 명백하게 만들기 위해 비협업의 관념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태업 모색

- 자유/공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당황하여, 새로운 실천은 화면 너머를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협업의 긍정적인 몸짓이 중립적 공간에서 물들여지고 디지털화된다면, 단지 날카로워진 도구만이 기식자의 운동을 드러낼 수 있다. **이윤이 지대의 비개인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그것의 부수효과는 태업의 익명성이다.**
- 지대가 그 착취의 좌표를 변화시키면서, 지대의 새로운 이론은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목표하기 전에 태업의 새로운 이론을 요구한다. 어떠한 종류의 태업이 사회적 공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비물질적인 것(가치)와 물질적인 것(상품) 사이의 관계가 더욱 연약함에 따라, 인지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더욱 강하다고 하고, 그러나 같은 이유로 태업은 보다 쉽다.
- 온라인 이용자들의 회색 다중은 비물질적/물질적 갈등을 따라서 자본과 그 구체적인 수익에 대항한 태업의 단순한 문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최근 헐리우드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쓸쓸한 몸짓을 자유문화로 이름붙이는 것은 팔걸이 행동주의처럼 들린다.
- 실 질적인 갈등에 따라 급진 문화가 설정된다면, 보다 솔직한 질문이 필요하다: "좋은"(good) 디지털 해적질이 갈등을 생산하는가, 아니면 단지 보다 많은 하드웨어와 대역폭을 판매하는 것인가? "좋은"(good) 디지털 해적질이 실질적인 축적에 대항한 효과적인 해악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대 축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떠한 디지털 공동주의(digital commonism) 덕분에, 축적은 여전히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대선전에서 비판적인 접근 혹은 부정적인 경향을 위한 여지가 없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침투 농도와 컴퓨터 기반의 비물질 노동은 어떠한 대항-효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 아마도 맑스가 그의 **"기계의 과편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기계의 보다 넓은 지배는 단순히 엔트로피를 가져오고 자본주의적 축적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 말의 의미는 보다 흐릿하고 두터운 기식 경제를 의미한다. 진료적인 의심은 디아토피아적인 운명에 열려있는채로 남아 있다: 인지 자본주의는 일반지성의 자기조직화를 성취하는 대신 단지 자본주의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인가?

사례들

- 자본주의 축적을 깨는 지점은 음악과 영화 기업의 인지 지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적 지식의 이전의 분류들은 어떻게 상징적이고 비물질적인 지대가 다른 수준들에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지구적 도시들에서 추방된 다중들은 지금 재개발과 새로운 상징 자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천년 민중(Millennium People)이라는 소설에서 발라드(Ballard)는 예언적으로 중간계급(노동계급이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여 런던의 국립영화관 같은 문화적 기구를 목표대상으로 하는 폭도들을 묘사하고 있다. 덜 극적이고 덜 폭력적으로 새로운 긴장은 오늘날 2012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도심 레노베이션에 대항하는 동런던에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바르셀로나에서 대규모 집회는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22@ 계획을 따르면서 이전의 산업 지구인 Poble Nou 를 재개발하는 것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 비슷하게 동베를린에서 미디어 Spree 프로젝트는 그곳의 문화적 지하세계로 폭넓게 알려진 지역에 대규모 미디어 기업들의 [취재]을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태업

- 부동산 투기가 지식 자본주의의 하나의 주도적인 힘임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투쟁들과 그들의 문화적 생산과의 연계는 어떠한 자유문화 의제보다 더 흥미롭다. 상징 자본과 물질적인 가치화 사이의 연결은 디지털주의자들이 추적하고 묘사할 수 없는 현상의 징후이다.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지의 구성은 전통적인 행동주의의 형태를 지나치지 않고 확실히 디지털만의 저항과 지식 공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 공유지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간의 마찰을 따라 끊임없이 배치되는 역동적이고 혼성적인 공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역동적인 공간이라면, 역동적으로 방식으로 방어되어야 한다. 지대의 비물질성과 익명성 때문에 태업의 문법은 네트워크사회와 인지 자본주의의 뒷에 달린 다중의 작업방식이 되어야 한다.
- 태업은 유일하게 가능한 지대에 반사하는 몸짓이다 - 단지 유일한 공유지 방어의 몸짓이다.